

#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속도

## 시, 국립광주과학관 벤치마킹...협력 방안 등 논의 에너지공대·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시너지 기대

나주시가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내며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 거점 조성에 나섰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최근 국립광주과학관을 방문해 과학관 운영 현황과 전시 콘텐츠 구성, 교육

프로그램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국립광주과학관은 전시 콘텐츠 공동 개발과 과학문화 프로그램 교류, 전문 인력 자문, 운영 노하우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특화 콘텐츠 개발과 청소년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조감도. 사진제공=나주시

대상 과학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은 대한민

국 에너지 산업 중심지인 나주에 조성되는 에너지 특화 과학관으로 에너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체험 중심 전시와 교육 콘텐츠를 통해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전력거래소 등 주요 에너지, 정보통신, 농생명, 문화예술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16개 공공기관과 과학문화 인프라 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관은 기존 과학관의 기초과학에 예

너지AI, 스마트 그리드, 인공태양(핵융합)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기술을 체험형 전시 콘텐츠로 구현해 학생과 시민이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또 실감형 미디어아트관, 어린이 에너지 창의체험관, 청소년 진로체험관, 에너지 산업사 전시관 등을 갖춘 복합 과학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 학생 대상 맞춤형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과 교원 연수, 기업 연계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지역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관이 건립되면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 관광과 숙박,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상징성과 전문성을 담은 특화 과학관으로 조성될 것이다”며 “빛가람 혁신도시를 세계적인 에너지 과학도시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담양, 주민 주도 에너지 생산...‘햇빛소득마을’ 조성 박차

## 마을 공동복지 실현...20개 마을 발굴·설치

담양군이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통해 마을 공동복지 실현에 앞장선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협동조합이 공동 부지(잡종지 등)에 300kW 이상 1MW 미만 규모의 태양광 발

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한 수익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돼 주민 복지와 지역 환원에 활용되며,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2500개소, 전남도는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정부 정책과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에 발맞춰 발 빠르게

수요 조사가 나섰으며, 20개 마을을 발굴해 지난달 전남도 컨설팅 대상으로 신청을 완료했다.

군은 유휴부지 확보 여부와 한전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도 부지 발굴과 계통 확보 여건을 갖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에

대비에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전환과 마을 복지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이라며 “주민 주도형 사업을 적극 지원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진도군보건소는 치매파트너를 양성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최근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신규 지정하고 복지관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진도군

## 진도, 치매극복 선도단체 신규 지정

### 군장애인종합복지관서 현판식

진도군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치매파트너를 양성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최근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신규 지정하고 복지관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현판 전달식은 복지관 관계자와 이용자 약 30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지역사회 내에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는 단체로, 기존에 지정된 선도단체 9개소, 가맹점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선도단체는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전남광역치매센터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다.

앞으로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치매를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치매 친화적인 진도군을 만드는 데 힘쓸 계획이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극복선도단체가 점차 확대되면서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과 단체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으로 진도군 내 치매극복선도단체는 10개소, 치매안심가맹점은 57개소가 됐다.

해당 모집은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사업장은 진도군보건소(061-540-6970)에 문의하면 된다.

진도=서석진 기자 ss3399@gwangnam.co.kr

## 강진,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연 36만원 지원

### 신규가입 소상공인 대상...경영부담 완화 기대

강진군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전남도와 협력해 지역상권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특히 기존 월 2만원이던 가입장려금을 올해부터 월 3만원으로 인상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2026년도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다.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3만 원씩 1년간 최대 36만원의 장려금이 적립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에 따른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적 공제 제도다.

납부한 공제금은 폐업 등 경영난 발생 시 압류가 불가한 자산으로 보호받아 안전하게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 할 수

다. 또 납입금 전액 적립과 함께 3.3%의 복리이자도 적용되며, 상해로 인한 사망과 장애 발생 시 월 납입금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장려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 만큼 관내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신규 가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군비로 부담하며 적극추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 장려금 신청은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우체국 등 관내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창구 방문 가입 시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를 지참해야 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2252@

# ‘낮과 밤 반짝이는 공간’ 광양 해비치로 달빛해변 개장

## 자연·도시 공존 경관 연출...스카이라인 형성

광양만을 따라 조성한 감성 수변 공간 ‘광양 해비치로 달빛해변’이 최근 개장하며 시민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있다.

해비치로 달빛해변은 도심 속에서 바다를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휴양 스트리트로, 걷기와 휴식, 문화 활동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총 1만5000㎡ 규모의 부지에 151면의 주차장과 4개 버스킹 공연장, 푸드트럭 존 등을 갖춘 도심형 해변으로 조성됐다.

해변에는 28그루의 야자수가 식재돼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하며, 캐노피와 파고라 등 휴식 시설을 설치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갯벌과 수면이 드러나는 광양만 특유의 자연경관과 아파트 단지, 무지개다리, 이순신대교가 어우러져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경관을 형성한다.

무지개다리와 해오름육교, 이순신대교는 해비치로의 상징적 경관 요소다. 무지개다리는 삼화섬을 연결하는 보행 통로로 공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오름육교는 낮에는 도심과 수변을 잇는 생

활형 보행교로 기능하며 야간에는 황금빛과 보랏빛 경관조명이 더해져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

무지개다리와 해오름육교 사이에 위치한 삼화섬은 낮에는 시민 쉼터로 활용되고, 야간에는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빛의 연출 공간으로 운영돼 낮과 밤이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체류형 명소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삼화섬·해비치로 광장 ‘달빛365’는 3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푸드트럭과 플라마켓, 버스킹이 함께하는 ‘달빛365 불금day’를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광양시 관계자는 “해비치로 달빛해변은 낮에는 바다와 자연이 주는 여유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수변 복합문화공간이다”며 “백운산권과 섬진강권을 연결하는 체류형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 화순사랑상품권 할인율 10%→12% 확대

### 모바일 2% 추가 캐시백 환급...QR 결제 이용 가능

화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화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한다.

이번 할인율은 지류 상품권 구매와 모바일 상품권 충전 시 모두 12% 선할인이 적용된다.

또 3월 한 달간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결제 금액의 2%를 추가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화순사랑상품권의 월 통합 구매 한도는 70만원이며, 이 중 지류 상품권은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다만 월별 예산 소진 시 판매가 조기 종

료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CHAK(착)’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약 3000개 가맹점에서 QR 결제로도 이용할 수 있다.

QR 결제 시 가맹점은 별도의 결제 수수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황과 추가 캐시백 지원으로 군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 고흥, 소상공인 스마트 경영환경 구축 지원

### 키오스크 등 최대 100만원

고흥군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 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객 편의를 높이는 등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고흥군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신청된 소상공인에게는 스마트 기술기

기 도입 비용의 8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기기는 스마트포드, 웨이빙 보드, 무인 판매기, 키오스크, 테이블포드 등이며, 범용 개인용 컴퓨터(PC) 노트북, 태블릿 등은 단독 도입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산업과(061-830-5353)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